

김남훈

변호사

민사법

기록형AtoZ

- 형식적 기재사항의 작성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
- 부동산등기법을 통한 부동산소송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민사집행법, 민사재판실무의 내용을 포함한 강의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을 기록형 시험에 접목할 수 있는 강의

일 정

2017. 5. 6(토) ~ 6. 10(토), 총 12 회, 매주 토요일

오전강의 오전 9시 ~ 12시 30분

오후강의 오후 2시 ~ 5시 30분

교 재

- Practice 민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저자, 근간)

## F A Q

**Q1. 기록형 시험의 출제경향은 무엇인가요?**

A1. 기록형 문제는 실무자들만이 출제하고 채점할 수 있다는 시험의 특성상 당연히 민사재판실무의 쟁점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기록형 문제는 출제방식과 작성요령 및 쟁점 모두 민사재판 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기록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도 변별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좋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기록형 시험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법, 어음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을 포함하는 진정한 통합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확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지금까지 출제된 상법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전단적 대표 행위’가,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영업양도’가, 제5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표현대표이사과 백지어 음이, 제6회 시험에서는 ‘대표소송’이 출제되었습니다.
- 두 번째 지금까지 출제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회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작권보존등기’에 관한 쟁점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 자가 있는 등기에 대한 말소(제1회 시험에서도 출제)’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5회 시험에서는 ‘추심명령’의 쟁점이 출제되었고, ‘보전처분의 법리’를 이해해야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6회 시험에서는 ‘압류 경합시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실무적인 쟁점들은 제1회 기록형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그 난이도가 매년 높아지고, 이제는 그러한 법리들을 알지 못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지식이 없이는 기록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F A Q

**Q2. 기록형 시험을 위한 공부방법론은 무엇인가요?**

- A2.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이나 답변내용 등도 판결문 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건사실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 내용도 학습해야 합니다.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사실무 과목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특히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요건사실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중요 분쟁유형에 대한 요건사실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어야 기록을 보면서 원고의 주장을 누락 없이 정리하고,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에 기출문제 등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Q3. 교재의 특징과 강의진행방향은 무엇인가요?**

A3. Practice 민사법 기록형 핵심정리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편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분쟁유형별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취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작성법을 통하여 민사법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강의를 통하여 청구취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2편은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실무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2017. 4. 1.자 판례공보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요건사실론’에 대한 교재를 추가하여 학습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요건사실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민사법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3편은 ‘부동산등기법’의 중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록형에는 반드시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기록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형에 출제되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F A Q

- 한편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록형 대비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특정 쟁점만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전부명령이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별도의 교재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학습은 무료로 진행되는 민사집행법 핵심정리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4. 메모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메모법도 강의해 주나요?**

A4. 메모법은 기록에 출제된 쟁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즉 의뢰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예상되는 항변 등을 정리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법리를 누락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민사변호사실무에서의 메모법은 민사재판실무에서의 메모법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는 실제 기록을 보고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의는 2순환에서 각 기록별로 메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5. 1순환 강의 이후의 기록형 강의는 무엇이 있나요?**

- A5.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2018년 제7회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과 2017년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중요 쟁점과 최신 판례의 쟁점을 기초로 구성된 실전용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즉 매주 토요일에 오전 8시 ~ 11시까지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 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당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 또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변호사시험 및 법전원 모의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분리수강 가능). 각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시에 각 문제별 메모법도 제시하여, 충분한 실전연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1순환과 2순환 강의를 통하여 기록형 답안 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와 실무과목의 중요 내용을 모두 강의할 것입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기록형 강의를 진행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여 출제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강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김남훈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기록형 강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